

[기획]

총선 D-9

지방신문협 공동 전국 판세 분석(上)

4·9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 일보를 비롯 부산일보·매일신문·대전일보·경남신문·강원일보·경인일보·전북일보·제주신문 등 전국 9개사로 구성된 한국 지방신문협회는 전국의 총선 판세를 공동 취재했다. 전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 독자들이 총선 판세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나눠 실는다.

광주·전남

18대 총선 공식 선거전의 막이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93명의 후보가 20개의 자리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경쟁을 시작했다.

통합민주당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전반적 우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거물급 무소속 후보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등이 잇따라 출마함에 따라 '민주당 일색'의 선거구도에 변화가 첨예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초반 예측과 달리, 광주 남구와 북구갑, 광산구갑 그리고 전남 목포와 무안·신안 등 5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목표는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상열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던지면서 호남 최대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광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가 27.5%의 지지율을 기록, 민주당 공천을 확보한 정영식 전 행자부 차관을 불과 0.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 민주당 공천자인 황호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접전을 벌이는 무안·신안 지역도 관심 선거구다. 최근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황 후보에게 다소 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28일 김 후보의 어머니 이희호 여사가 무안을 방문한 뒤 지지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틀 DJ'라 불리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광주 북구갑 지역도 치열한 접전이 진행되고 있

다. 전국적 인지도와 구 민주당 인사들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 대표가, 민주당 공천을 따낸 현역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는 강은태 전 내무부장관과 현역인 지방문 의원이 4년만의 리턴 매치를 치르고 있으며, 광주 광산구갑 지역도 무소속 송병태 후보와 현역인 민주당 김동철 후보간 한 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김지훈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지원씨 등 거물급 무소속 돌풍 주목

전북

전북지역은 통합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는 점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전북지역 정권권의 양대 축을 형성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구 민주당의 합당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일당독주 체제가 구축돼 선거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을 통합 효과에 이은 '개혁공천'의 시너지 효과를 등에 업고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견제할 야당다운 야당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전북에서부터 통합민주당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

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도내 11개 전 선거구를 석권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싸늘이한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전 선거구를 석권할 것인지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일당독주'에 대한 견제심리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결성한 '전북민주시민연합'이 주목받고 있다.

무소속 연대에 참여한 후보들은 전주 완산갑, 전주 완산을, 전주 덕진 익산갑, 익산을, 정읍, 남원·순창 지역의 후보들로 2-3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당 공천탈락에 불복해 탈당했다는 '불명예'가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지역 기반을 갖춘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재선의 강봉규 의원과 도지사 출신의 무소속 강현욱 후보가 맞붙는 군산지역도 도내 최대 승부처로 거론된다.

/전북일보

민주당 싸늘이 예상 속 군산 최대 관심

수도권

수도권은 4·9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각 당의 명운을 건 총선없는 '혈전'이 치러지고 있다.

수도권 총선 판도는 당초 한나라당이 111개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공천 파행과 금품살포, 관권선거 등의 여파로 여지없이 깨져 '과반석 의석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거여견제론'의 '장'을 높이 치켜든 통합민주당에 이어 '진박연대' 돌풍까지 몰아치면서 수도권 총선 판도가 극심한 혼전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서울서 가장 주목되는 격전지는 서울 동작을과 종로. 수도권서 민주당 바람 일으키기 위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손학규 대표 등 '투톱'을 각각 전략 공천했다.

이곳서 맞붙은 한나라당이 정몽준, 박진 의원 '쌍두마차'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시세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은평에서 전개하는 '진검 승부'도 관심 포인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운하 추진을 지지하겠다는 출마한 문 대표를 이의원이 상당한 차로 따돌리고 있다.

또 서울 노원 병에서는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와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가 각각 노동자대 경영자 이미지를 앞세워 피말리는 접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노 후보의 표를 잠식하고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뒷발'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벨트'에서는 '함'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

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서울 북동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한나라당 정치신인들을 '저만치' 앞지르고 있다. 김근태(도봉갑) 추미애(관진을) 김덕규(종랑을) 유인태(도봉을) 후보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자유선진당도 중진인 강삼재 전 의원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지역구인 양천갑에 투입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성명 의원은 부인인 신은경 전 KBS 앵커를 중구에 대리출마시켜 '복수혈전'을 피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51개 선거구중 한나라당은 31곳, 통합민주당은 28개 선거구에서 '우세' 및 '백중

우세'를 장담하고 있는 가운데 11곳의 선거구에서 서로 우세 및 백중우세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극심한 혼전 양상으로 전개 총선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혈전'이 예상되는 곳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맞붙는 수원영통.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반부터 경합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통합민주당이 계양을과 계양갑을 우세지역으로 점치고 6곳 백중우세, 3곳 백중열세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12개 선거구 중 8군데가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인일보

각 당 사활 건 혈투... 격전지 늘어 혼전

충청권

총 24석(대전 6, 충남 10, 충북 8)을 놓고 선거전부터 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충청권은 선거초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기관과 각 당 지도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전 서구갑 박병석 후보와 충북 충주 이시종 후보 등 2곳, 한나라당은 충북 제천·단양 송광호 후보, 선진당은 충남 예산·홍성 이희창 후보와 공주·연기 삼대령 후보 등 2곳에서 각

각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역의원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각각 정권안정론과 '지역기반론'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저마다 선거막판 부동층의 표심이 대거 유입될 경우 현재 접전지역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 중구에서 한나라당 강창희 후보가

다소 앞서나 선진당 권선택 후보가 맹추격중이며 서구에서선 나경수(한나라)·이재선(선진당) 후보의 대결속에 박병계(민주)후보가 추격중이다.

충남은 선진당의 강세 속에 현역중심의 민주당과 새로운 인물을 내세운 한나라당이 추격중이다.

보령·서천과 당진은 선진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천안갑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서산·태안은 민

주당과 선진당이 맞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충북 청주상당구에서 한나라당 홍재형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진 가운데 증평·괴산·음성·진천과 청원청주 흥덕갑에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옥천·영동·보은에선 선진당과 한나라당간 양강구도로 진행중이며 청주 흥덕을의 경우 3당 경합 속에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대전일보

'인물론 VS 안정론' 여야 3당 황금 분할

(민주·한나라·선진당)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Kwangju Jeju 2nd Round Investment Co., Ltd. (제8기 결산공고). Includes columns for account type, amount, and balance.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Daehan Paper (주) (제8기 결산공고). Includes columns for account type, amount, and balance.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Chungheung Construction (주) (제19기 결산공고). Includes columns for account type, amount, and balance.